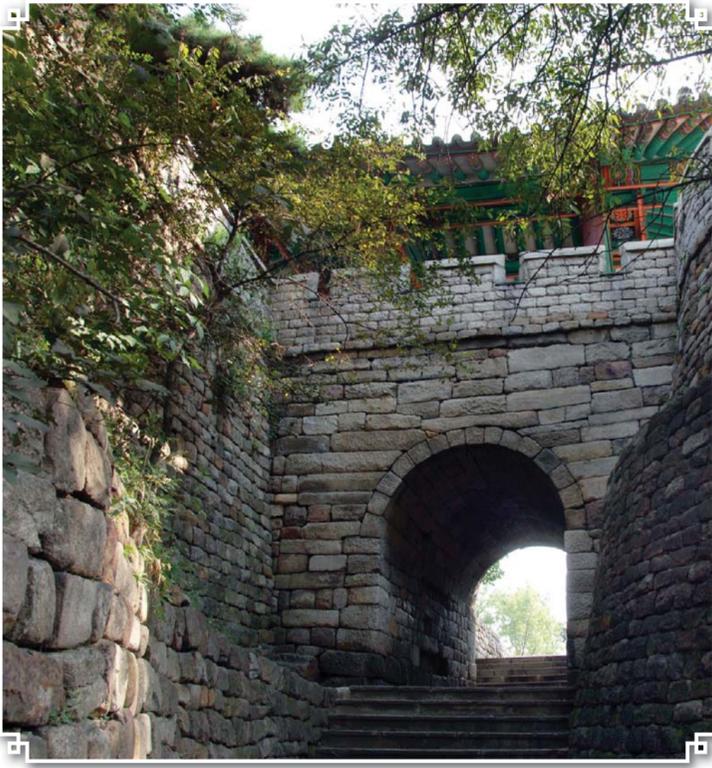


모란봉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2)

《행복의 문》 - 칠성문



모란봉은 아름다우면서도 역사유적이 참으로 많은 곳이다. 울밀대를 지나 칠성문으로 향하면서 리일심연구사는 그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칠성문은 6세기 중엽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 때 세운 내성의 북문으로서 그 이름은 북쪽 하늘가에 떠오르는 북두칠성의 별자리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무술을 닦지 못한 사람이나 변방에 번을 서러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칠성문을 나들지 못했다》고 했다고 한다. 한것은 무술을 닦으러 가는 사람들도 칠성문을 통하여 나갔고 변방에 번을 서러 떠나는 군사도 칠성문으로 나갔기때문이었다. 칠성문을 나들지 못한 탓에 사랑을 잃어버린 한 총각이 사랑하는 처녀에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무술을 닦아 집장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와 처녀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도 전해지고있다고 한다. 그때부터 칠성문은 《행복의 문》으로 불리워왔다고 한다. 비록 전설이지만 외적의 침

입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켜준 선조들의 애국의 넋을 감명깊게 느낄수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칠성문에 이르렀다. 마루선들과 지붕면들이 잘 짜여있는 칠성문의 흔적마함 각지방과 화려한 모루단청은 문루의 품위를 한껏 돋구어 주고있었다. 《칠성문은 두 성벽을 약 10m사이를 두고 서로 어긋나게 쌓고 그 두 성벽사이에 그와 직각되게 가로세웠는데 성문을 이렇게 형성한것은 고구려산성문의 특징의 하나로서 고구려시기 우리 민족의 높은 성문건축술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도 칠성문에 여러번 와보았지만 리일심연구사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모든것이 새롭게만 느껴졌다. 고구려, 고려, 조선봉건왕조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해져오는 칠성문,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선조들의 애국적인 투쟁이야기가 깃들여있는 유적이어서 그런지 문루의 기둥이며 성벽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돌들도 무심히 볼수 없었다. 글본사기자 김 철 사진 본사기자 동창현

꽃집에 넘치는 정서

평양시 증구역에 가면 꽃집으로 불리우는 가정이 있다. 동안1동 63민민반에 살고있는 김영숙녀성의 가정이다. 그의 가정에는 제라니움, 줄장미, 금전화를 비롯한 꽃들과 사시장철 푸름을 잃지 않는 주목, 향나무 그리고 관상적 효과와 약용가치가 큰 선인장들이 가득 차있다. 남달리 화초가꾸기를 즐겨하는 김영숙녀성은 베란다를 여가까지 식물들로 이채롭게 단장하고 정성다해 가꾸고있다. 얼마전 취재차로 김영숙녀성의 집에 들어서니 그윽한 꽃향기가 온몸을 감쌌다. 이른아침 화초들을 먼저 둘러보아야 일이 손에 잡히고 희귀한 화초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구해놓아야 마음이 즐겁다는 김영숙녀성이었다. 이렇게 품들어 마련하고 가꾼 화분들이 그의 가정에서 100여개나 된다. 많은 꽃들을 가꾸기가 힘

들지 않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그와 반대로, 그윽한 향기속에 활짝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는것이였다. 오래동안 피어있는 꽃들과 밝고 선명한 색깔의 꽃들을 잘 배합하여 심어 언제나 아름다운 꽃속에 물려있는 그의 집으로는 꽃씨를 구하러, 꽃배방법을 배우러 동안의 주민들이 때없이 찾아온다. 그런 그들에게 꽃씨들을 안겨주기도 하고 꽃을 가꾸면서 터득한 경험들도 차근차근 알려주는 김영숙녀성이었다. 가정에서의 꽃가꾸기에 대한 경험과 상식이 부족하여 애를 먹던 사람들도 그의 《강의》를 받고는 꽃을 더 잘 가꾸었다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곤 한다. 화초애호가 기쁨,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품들여 키운 아름다운 꽃들을 볼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한가정

의 울라리를 벗어나 거리와 마을, 일터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궁지와 보람이 아니라. 지금 김영숙녀성이 살고있는 아파트의 어느 가정에서나 경쟁적으로 꽃들을 키우고있다고 한다. 보석과도 같은 예곡의 마음이 자양분이 되어서인가 더욱더 아름답게만 보이는 꽃송이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이렇듯 풍만한 정서를 안겨주는 꽃가꾸기와 더불어 예곡의 향기, 행복의 향기가 차넘치는 생활은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김춘경



어휘와 표현을 통해 본 조선어의 우수성

오늘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은 수천개의 서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중에서 사용인구가 5000만명이 넘는 언어는 조선어를 비롯하여 10여개정도 밖에 안된다고 한다. 조선어가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언어로 빛을 뿌려온것은 우리 말이 말소리가 아름답고 류창하며 어휘와 표현이 대단히 풍부하기때문이다. 실제로 웃음과 관련한 어휘와 표현만 해도 무려 800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중에는 《하하》, 《허허》, 《호호》, 《해해》 등 웃음소리를 직접 나타내는 말들도 있고 《방글방글》, 《방글방글》, 《해물해물》, 《씨물씨물》 등과

같이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아주 많다. 사물현상의 움직임이나 나타내는 동사들도 매우 풍부하다. 밥을 만들 때에는 《짓다》라고 하고 죽을 만들 때에는 《쑤다》라고 하는것을 비롯하여 《떡을 치다》, 《만두를 빚다》, 《국수를 두르다》, 《지짐을 지지다》, 《두부를 얹다》, 《김치를 담그다》 등 여러가지 표현이 쓰이는데 이것만 보아도 우리 말의 동사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발달되었는가 하는것을 잘 알 수 있다. 물이 흐르는 현상 하나를 놓고도 그 모양과 소리에 따라 《졸졸》, 《졸졸》, 《팔팔》, 《팔팔뚝뚝》, 《와와》, 《와와》 등으로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있다. 하기에 많은 나라의 언어 학자들도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정도를 본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첫채가는 자리에 설것이다. 조선어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능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공화국에서는 언어생활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외래어, 비문화적인 요소들이 청산 및 정리되고 오늘과 같이 우수한 조선어가 인민들속에 널리 리용되고있으며 평양문화어는 주제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이 살아나는 언어로 더욱 발전하고있다. 본사기자

민족시문학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정법과 시 《외로운 돌》

정법은 고구려의 승려, 시인이다. 그는 시를 잘 지어 이름이 높았다. 그는 한때 이웃나라에 가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시로 명성을 떨치였다. 그의 생애와 문학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 다만 《해동역사》 백부자를 찾아갔다. 찾아온 자연을 들은 백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교웃음을 쳤다. 《이보라구, 내 지금껏 사람이 물귀신을 이겼다는 말도 들었네. 괜히 굶어부스럼같은 역사질을 그만두고 농사나 확실히 지으라구. 불귀종을 누잡아서 땅이나 때우지 말라구. 사람에게 전해주라구.》

《외로운 돌》(《고석》) 드높은 바위 하늘에 곧추 솟아 뉘어나뉘은 호수 사방으로 굽어보네

바위밑엔 언젠나 물결 찰랑이고 소소리높은 나무가지마다 바람일세

물결위에 비낀 그 그림자 맑아라 노을에 반들리워 붉은빛 서리누나

못봉우리를 눈아래 굽어

이 시는 정법사가 이웃나라에 가있을 때 어느 호수가의 자연풍경을 노래한것이다. 시는 공중에 높이 솟은 바위를 중심으로 그결에 서있는 나무, 호수의 맑은 물결, 붉게 타는 노을빛 등 아름다운 자연의 풍치를 선명하게 그려보이고있다. 시는 호수가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바위의 장쾌한 모습에 대한 생동한 시적묘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썩씩고 굳건한 기상을 찬양하였다. 작품은 시어가 아름답고 경이 높아 그 나라 사람들속에 널리 불리워졌으며 그곳 명시선집에도 올라있다. 본사기자

널리 사용되고있는 건강검진프로그램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지능형순환화프로그램 건강검진 《활력》 2.0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고있다. 건강검진 《활력》 2.0은 지능형순환화프로그램

건강검진 《활력》의 새로운 판본으로서 혈압, 맥박, 시력, 청력, 폐활량, 호흡수, 혈액산소, 심리상태, 절음수 등을 측정하고 리력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그에 알맞는 건강검진지시기능을 주는 건강검진프로그램이다. 새로 개발된 이 프로그램에는 이전 판본에 비하여 호흡수, 혈액산소, 심리상태측정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운동지시기능도 더욱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리용자관리기능을 새로 추가하여 현대의 손전화기로 여러명의 리용자들이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자료리리를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종전과는 달리 혈압교정기능에 의하여 혈압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나이가 많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혈압관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리용하여 걷기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매일 걷는 걸음수와 소비된 에너지를도 관찰할수 있으며 체육인들의 달리기운동과정에 소비되는 에너지를도 정확히 측정해낼수 있다. 또한 운동지시기능을 리용하여 시력, 청력을 보호하고 몸무게와 혈압을 조절할수 있는 운동들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본사기자

9월의 절기에는 백로와 추분이 있다. 백로란 맑은 이슬이 내리고 가을기운이 스며드는 때라는 뜻이다. 백로때에 이르러 산과 들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머루, 다래, 돌배 등 산열매들이 익기 시작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 조를 비롯한 농작물

들에 대한 가을과 밀보리서 뿌리기를 하였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목화하기도 하였다. 산간지대에서는 약초캐기와 산열매따기도 하였다. 추분은 여름기운이 완전히 가서지고 가을이 된다는 뜻으로서 이날 낮과 밤의 길이는 거의 같아지며 그후 부터 밤보다 낮이 점점 짧아진다. 추분때에 이르러 눈에서는 벼가을을 하였으며 밭에서는 콩을 비로한 밭곡식을 거두어들였으며 밀보리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올해의 백로는 9월 7일, 추분은 9월 22일이다. 본사기자

사화

천 인 독 (3)

글 전철호, 그림 리성일

쌀쌀하게 울리는 안해의 말에 응기는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올랐다. 《산돼지 잡으러다가 집돼지 놓치라우?》 《이보세요, 어느제 산돼지고 집돼지인줄은 모르겠지만 똑쌍은 일만은 누구든 먼저 나서야만 할 일이에요. 그래야 온 마을이 따라나설 거란 말이예요.》 《차, 입자가 뭘 안다구 그래?》 《다른 일은 잘 몰라도 똑쌍은 일만은 알아요. 생각해 보시라요. 해마다 물란리리 사람들이 해를 입고있는데... 우리 진작 길바닥을 높이고 개울쪽을 쌓아야 했어요. 그랬더라면 딸도 잃지 않았을 텐데...》 울먹이며 말을 하던 안해는 오열을 터치였다. 응기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안해의 어깨를 부여잡았다. 《됐소, 됐소. 다 제명이 짱이 그렇게 된건데 왜 자꾸 지나간 일을 생각하며 가슴을 허미는거지요?》 안해는 자기의 어깨에서 응

기의 손을 떼어내며 고개를 저었다. 《지나간 일이라구요? 지난해 물란리를 벌써 잊었었어요? 지난해는 랑군님이 물에 빠져 봉변을 당했지만 올해는 내가 또 그렇게 될지 아니면 다른 집사람들이 그렇게 될지 알지 뭐나요. 똑을 쌓는 일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나 랑군님을 위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일인 데도 남을 위한 일처럼 여기면서 강건너 불보듯 한다면 우리 마을사람들은 언제 가도 물귀신의 화를 면할수 없어요. 이보세요, 똑을 쌓는 일에 우리 집에서 먼저 나서자요. 예?》 응기는 본의아니게 안해의 마음을 괴롭힌것이 미안하여 말이 섣뜻 나가지 않았다. 《왜 대답을 안하세요? 장부일엔 충천금이라는데 랑군께서 생시엔 꿈에서든 일 단 누구와 언약을 하셨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데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대장부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응기는 숨이 격

전역기념일 묘길상돌 등

묘길상돌등은 강원도 금강산 내금강리 만폭동의 묘길상알에 있는 고려시기의 돌등이다. 이 돌등은 묘길상알에 있는데 넓적한 받침돌우에 기둥들을 세우고 그우에 사방이 트인 불집돌, 머리돌을 올려놓는것이다.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높이는 3.66m이다. 아래에 방형의 받침대를 놓고 그우에 높이 63cm의 기둥들을 4개 세웠다. 불집기둥들은 안쪽만 모가 나게 하고 다른 3편은 둥글게 다듬어 부드러운 곡선을 지었다. 불집기둥돌우에 사가지 봉오리의 지붕돌을 올려놓았다. 머리부분에는 둥글게 다듬은 돌(보주)을 2개 포개 놓았다. 이 돌등은 불집대돌과 지붕돌이 큰것이 특징이다. 돌등의 받침대돌은 잘 다듬어졌으며 불집대돌의 선들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



께 추백천에 나가 똑쌍은 일을 벌리였다. 질삿반을 엮은 두개의 지계를 세워놓고 안해가 흙을 퍼실으면 응기는 그것을 지어다 길옆에 쏟았다. 걸가던 사람들도 똑쌍은 사연을 알고는 감동이 되어 한참씩 그들을 도와나섰다. 뒤늦게 응기부부의 소행을 안 마을의 좌상로인이 동네사람들을 휘동해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혼자 이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응기를 나무람하고는 부지런히 흙을 막히는듯 하였다. 아내자의 마음도 이리할진대 사내란 사람이 똑막을 방책을 제 머리로가 아니라 기껏 꿈에나 메달리려 하였으니 그게 무슨 대장부야. 목목부담인 응기를 지켜보던 안해가 힘을 쉬더니 나지막하나 힘있는 어조로 말을 하였다. 《정 나설 마음이 없으시다면... 저라도 나서겠어요. 한삼두삼 흙을 떠옮기느라면 온 마을이 떨쳐나설 때가 있겠으니 어떻게든 끝장을 보게 되겠지요.》 고개를 번쩍 쳐든 응기의 두눈에서는 불이 이글거리는 것 같았다. 바로 그거다. 제 집사람들 부터 떨쳐나선다면 어찌 온 마을이 따라나서지 않겠는가. 나는 왜 안해처럼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건 다 자기 집사람들과 마을사람들을 믿지 못했기때문일것이다. 응기는 자기의 생각을 떠워준 안해의 손을 꼭 그러 쥐었다. 《고맙소.》 다음날 응기는 안해와 함

일자리가 폭폭 났다. 그런데 둘러보니 신통히도 부자집사람들만 보이지 않았다. 땅부자인 백부자네도 가게주인 류부자네도 누구 하나 나오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은 부자들이 나와야 알건달이나 부리고 소란이나 피울텐데 차라리 잘됐다고 좋아했다. 하지만 응기의 생각은 달랐다. 그네들도 마을에 태운들은 사람일진대 물에 다스리는 역사가 저희들에게도 유익함을 모르지 않을것

이였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별다고 그들도 떨쳐나 흙 한삼을 보태도 그만급 역사가 빨라질 것이 아닌가. 다음날 응기는 아침일찍



속담과 뜻

- ◆ 가을밭에 가면 가난한 친정에 가는것보다 낫다. 가을철의 밭에는 먹을것이 많음을 이르는 말.
- ◆ 닭이 친이면 봉이 한마리.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가운데는 뛰어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비유 이르는 말.
- ◆ 화가 흠이더 동심하듯. 화가 불끈불끈 솟는 모양을 이르는 말.

레일 쫓으세요

어머니의 생일날 저녁 부엌에 가득 쌓인 빈그릇들을 본 딸이 정답게 말하였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생일인데 설거지를 하지 마세요.》 딸의 대견한 말에 저오기 감동된 어머니가 《괜찮다. 엄마가 하지.》 하며 팔을 걷어붙이자 딸이 다시 말하였다. 《오늘은 그냥 놔두고 레일 쫓으면 되지 않나요?》